

김 지사, 국회찾아 정부 추경사업 전방위 건의

진성준 정책위의장·허영 예결위 간사 등 만나 2025년 추경 반영 요청 AI 허브부터 균산항까지... 전북 미래 견인할 5대 핵심사업 직접 설득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정부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에 대응해 전북 핵심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다. 24일 밝혔다.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에 대응해 전북 핵심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박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직접 만나 예산 반영을 요청한 데 이어, 24일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결위 간사를 차례로 만나 전북의 주요 현안과 지역 미래를 위한 5대 핵심사업을 집중 설명했다.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을 비롯한 17개 주요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 예산 반영을 이끌어내기 위

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총력전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이 미래 산업의 테스트베드를 강조하며 △전북·경북 초광역 AX 활성화(30억원), △전북 AI 신뢰성 혁신 허브 구축(30억원) 등 AI 기반 미래산업 관련 사업을 집중 설명했다.

또한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85억원), △균산항 유지 준설(150억원),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5억원) 등 민생 기반 확충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강하게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국가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는 곧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대한 과제"라며 "남은 국회 심의 기간 동안 전북자치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환경청, 홍수대응 워크숍 개최

관계기관 10곳과 협업... 홍수대응 역량 향상 도모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23일 홍수기 재난관리 인식 제고와 홍수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영산강홍수통제소, 전주기상지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등 민경·동진강 유역을 관리하는 10개 기관에서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전북환경청의 민경·동진강 홍수취약지구 관리방안 및 재난대응 통합시스템 확대·운영 방안, △전주기상지청의 여름철 기후전망, △영산강홍수통제소의 홍수대응계획, △전북특별자치도의 수해방지대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자리에서 전북환경청은 지난 4월 17일에 개최된 '2025년 홍수취약지구 지정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도출된 홍수취약지구 43개소를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공유하였다.

신규 지정 지구에 대한 설명은 물론, 취약사항 해소로 해결된 지구에 대한 경과도 함께 발표하였으며, 피해 예방 및 통계자료 DB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별 지원 사항에 대한 협의도 이뤄졌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지난 2024년 5월에 구축된 '재난대응 통합시스템'의 2024년 운영 실적을 공유하여,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확인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아울러, 기존에 전북특별자치도에만 송출되던 국가하천 CCTV 화면을 기초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정일 하천관리팀장은 "홍수취약지구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인명 보호는 물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홍수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자치도, 정밀장비 동원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운영계획·점검 대상 30곳 확정... 내달부터 8월까지 집중 점검 실시

자문단 배분·장비 활용한 과학적 진단으로... 구조 안정성 면밀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2025년 상반기 재난취약시설 30곳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대상'을 확정하고 시설별 점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참여해 정밀점검 대상 선정과 점검 운영 계획 수립, 자문단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도 안전관리자문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도 조례'에 따라 구성된 민간전문가 조직으로, 건축, 토목, 전기 등 9개 분야의 대학교수 및 실무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단은 도에서 매년 추진하는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점검에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기술 자문을 수행하며, 재난 예방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자문단 활동성과 보고와 함께, 도 및 시군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30개소 시설을 검토하여 각 위원에게 시설별 점검을 배분했다. 확정된 대상지는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순차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철근탐사기, 초음파탐사기, 슈미트 해머 등 최신 정밀장비를 활용해 구조적 안정성과 손상 여부를 종합 진단하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는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점검 이후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에 시정·보수 조치를 통보하고,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도, 침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현장 점검

군산시-참여기관과 침수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향후 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24일 침수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이 구축되고 있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주관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해 한국건설기계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주요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전북테크노파크는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 전반과 구축 중인 침수 특화 장비 현황, 연계 R&D 사업의 진척 상황을 보고했다.

이어진 시연에서는 계획된 10종의 장비 중 △침수 제품 설계 3D 모델 소프트웨어 △배수펌프 내구 및 평가 장비 △복합 살수 워크인 챔버 등 이미 구축이 완료된 5종의 장비를 선보이며 기술력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 선정된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침수 특화 제품의 기술 성능시험·평가 플랫폼 구축과 R&D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기술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말까지 나머지 5종의 장비 구축을 마무리하고, 완성된 진흥시설을 기반으로 기술 고도화, 시제품 상용화, 성능 인증 등 후속 전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안전산업 박람회 참가와 홍보 활동을 통해 도내 침수 대응 기술의 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오백립 도 도민안전실장은 "전국 최초로 전북에 조성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안전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침수 재난 대응기술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대병원, '스마트 인큐베이터 플랫폼 개발' 국책사업 최종 선발

소아청소년과 김현호 교수 연구 선정... 신생아 응급상황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 목표로 5년간 사업 진행

전북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지역의료혁신 연구개발사업에 최종 선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지역의료혁신 연구개발사업 '응급상황 신생아 원격진료를 위한 스마트 인큐베이터 플랫폼 개발'에 선정돼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구성된 47.59억원의 사업비를 운용,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응급상황인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신속한 원격 진료 및 협진과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지원기술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경량화된 이동형 스마트 인큐베이터 개발을 통해 현장 적용성과 긴급 대응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주관 연구개발기관은 전북대병원으로 연구 책임자는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현호 교수이다. 신생아 집중치료 분야의 전문의인 김현호 교수는 국내·외 중환자 치



전북대학교병원 전경

료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예측 모델에 대한 임상연구를 활발히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임상현장 중심의 실용적 기술 개발 및 의료현장 적용 가능성 확보 등의 성과를 이뤄내고자 한다.

세부 연구 내용에는 △스마트 인큐베이터 전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실시간 생체신호 모니터링 △AI 기반 질환 예측 및 진단보조 시스템 △원격 진료 및 협진 통합 플랫폼 구축 △경량형 인큐베이터 설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전북대병원은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의료기관 대상 시범 운영을 계획 중이다.

/오상근 기자

익산시 공고 제2025-1342호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계획의 개요
 - 가.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석암동, 판봉동 일원
 - 나. 규모: 3,273,736㎡(병경 없음)
-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기 간: 2025. 04. 25. ~ 2025. 05. 26.(20일간)
 - 나. 공람장소: 익산시 미래산업과, 익산시 홈페이지 (www.iksan.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주민설명회 개최일정

구분	일시	장소
1	2025.05.09.(금), 14: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 490 (예술의전당 세미나실)
-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가. 제출기한: 공고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까지
 - 나. 제출방법(제출양식은 공람장소 및 익산시 홈페이지)
 - 익산시 미래산업과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산업과(063-859-5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5일 익산 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3-9700 www.fjmaeil.com